

한국 요실금 여성노인의 생애이야기-내러티브 분석적 접근

이봉숙¹ · 이명선²

¹송곡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²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Life Stories of Elderly Korean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A Narrative Study Approach

Yih, Bong-Sook¹ · Yi, Myungsun²

¹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ege, Chuncheon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urinary incontinence (UI) for elderly Korean women using a narrative approach.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5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who had UI for at least 1 yr. The narratives of the life stories of these women were analyzed from the actor's perspective, motivation and purpose of actions, and action toward goal achievement. Also the narratives on UI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gnition, behavior, and evaluation of UI. **Results:** Three major types of the life stories emerg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conquest narrative type reflects active characteristics of narrators within the circumstances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Second, the patience narrative is characterized as having flexibility between self determination for goal achievement and the boundary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Lastly, the compliance narrative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narrators who easily adapt their way of life to circumstances. In terms of UI, the narrators in all three types lacked awareness of UI as an illness condition. Three different reasons are specifically identified according to the narrative typ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ncept and the illness behaviors related to UI in elderly Korean women with UI were closely related to the way of women's lives within the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Key words: Urinary incontinence, Narration, Elderly, Wome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 요실금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노인 요실금은 높은 이환율, 낮은 치료율, 그리고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만성질환 중 하나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요실금을 국민건강관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Hunt, 1993; Oh & Kim, 2005; Roe & May, 1999). 요실금 관련 국내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여성노인 중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64.4% 이상이 요실금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2; Park, Kwon, & Kang,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에 대한 치료율은 극히 저조하여, 80% 이상이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03; Park, Kwon, & Kang, 2001). 또한 요실금 환자 중 64.8%가 요실금을 특별히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요실금 발현 부위가 극히 사적 영역이라는 점과 요실금을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Kim & Lee, 2003; Park, Kwon, & Kang, 2001; Shaw, Tan-

주요어 : 요실금, 내러티브, 노인, 여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h, Bong-Sook

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ege, 1 Changchon-ri, Namsan-myeon, Chuncheon 200-911, Korea
Tel: 82-33-260-3690 Fax: 82-33-261-4599 E-mail: yihdoh03@snu.ac.kr

투고일 : 2008년 10월 21일 심사회의일 : 2008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1일

sey, Hyde, & Allan, 2001).

그러나 요실금은 비뇨기 관련 질환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냄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나 자존감 저하 등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Kim & Lee, 2003),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국민건강관리 사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요실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생리적 측면만으로는 노인 요실금이 안고 있는 주된 난제인 높은 이환율, 낮은 치료율, 그리고 삶의 질 저하와 관련된 질병-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비추어본 질병-행동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이 노인요실금이 안고 있는 다각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 상응하리라 본다.

특히 질병은 아픈 것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 병리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Kleinman, 1980). 그러므로 질병은 각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한국 여성노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질병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Cho 등(2003)의 한국 여성노인의 질병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을 고생스러운 삶, 억눌린 감정, 팔자 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Park (2002)의 연구에서도 가난과 노동으로 인한 산후조리 소홀을 만성질환에 대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질병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한국 노인은 타 연령층과 달리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아픔을 경험한 세대로서, 이들의 특수한 시대적 삶의 경험은 타 연령층과 차별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요실금 여성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애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위 패턴을 찾아내어 현재 질병행위와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서사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요실금 여성노인의 생애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사적 특성을 밝혀 유형화한다. 또한 각 서사 유형이 지닌 요실금서사의 특성을 파악해보므로써 생애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질병행위와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질병관을 각각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한국 요실금 여성노인의 삶을 서사 연구 방법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했다. 서사 연구 방법은 생애이야기 자료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뿐 아니라 삶에 대한 이

야기의 구성 방법이 어떠한지를 이야기 속 흐름을 통해 파악해 낼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이다(Lee, 2004). 주관적 경험세계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에서는 경험자의 특정 경험적 국면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사연구에서는 전 생애과정에 따른 경험의 지속성이 연구 결과와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점과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 즉 언어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성이 있다. 질병과 삶의 경험과의 관계는 생의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생애 전체를 통한 통합적 맥락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과거를 통한 현재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그 타당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 및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Recoeur,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사연구방법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삶을 경험한 여성노인들의 생애과정을 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줌으로써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패턴과 현재 요실금 질병행위에서 나타나는 행위패턴과의 관계성을 언표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라 본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15명의 요실금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C시에 있는 노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A복지관 이용자들 10명과 같은 지역의 노인정 이용자 중 5명을 선별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으로 요실금 경험 최소 1년 이상인 자를 선정대상으로 삼았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복지관 회의실과 예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라는 연구질문을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세부적 질문에서는 어린 시절, 결혼, 자녀양육, 노년의 삶 그리고 질병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요실금 여성노인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전에 주지시켜줌으로써 개인적 비밀보장의 권리를 엄격히 따르고자 했다.

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이야기 자료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분석되었다. 제1단계 분석에서는 참여자들의 인생살이 자료만을 분류하여 그들의 생애 이야기를 행위자, 행위동기 그리고 행위주도성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야기 구성 원리에 대한 분석적 접근(Burke, 1945)으로 누가, 어떠한 동기 및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즉 행위자 분석항목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행위동기 및 목적 항목에서는 왜 화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였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자아향상을 위한 수행성 동기와 주변인물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결속감의 동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 행위주도성 항목에서는 화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살아왔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화자의 의지관철 방식으로서 상황주도성 대 상황순응성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의 마지막 분석과정인 서사유형화 단계에서는 근거이론 분석방법(Strauss & Corbin, 1998)의 일환인 개념에 대한 속성들 간의 강도에 초점을 두었다. 강 항목별 출현강도를 강, 중, 약으로 정해놓고, 분명한 사례가 적용되고 있을 경우 (강)으로 보았으며 (+++)으로 표기했다. (중)은 (++)으로 표기하였으며, 분명한 사례제시와 그 사례에 반하는 사례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약)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다른 속성들에 비해 현저히 약하게 또는 단편적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로 표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애서사 유형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다음 단계인 제2단계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최종 도출된 생애서사유형별 노년에 경험하고 있는 요실금 관련 자료를 재분류하였다. 이 자료들은 다시 요실금에 대한 인식, 관리행위, 그리고 요실금에 대한 평가가 유형별로 어떻게 특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인식 분석 항목에서는 “요실금은 왜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관리행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실금을 어떻게 관리해오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 평가 항목에서는 “요실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내용으로 화자가 지닌 질병관에 접근해봄으로써 요실금이 지닌 질병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했다.

이상의 서사 분석과정은 이야기 구조 및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함께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질적연구 전문가와 언어학자가 함께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

증 및 질 확보를 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5명의 요실금 여성노인들을 통해 얻어진 삶의 경험들은 생애 이야기 서사와 요실금 질병서사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대표사례들을 통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1. 생애이야기 서사 분석결과

먼저 생애이야기 서사 분석에서는 여성노인의 생애이야기를 행위자, 행위동기 및 목적 그리고 행위주도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생애서사 유형인 극복서사, 인내서사 그리고 순종서사가 도출되었다(Table 2). 이야기의 구성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분석단계는 이야기의 핵심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행위자 분석항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행위자 분석에서는 이야기가 화자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화자중심과 화자 이외의 가족이나 타인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타자중심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하나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례에서는 화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화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얼마만큼 자아의 내면세계에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Table 1).

두 번째 분석기준은 행위동기 및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이 평가 부분에서는 화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자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성 동기와 타인과의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결속감의 동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행한 행위의 근간은 자아향상과 주변인과의 관계유지 모두를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발전적 성향이 강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변인과의 관계성 또한 중요한 행위 근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 분석기준은 행위주도성으로 화자가 얼마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생애를 살아왔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황주도성과 상황순응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사례에서는 상황주도성만이 강하게 나타났고, 여섯 사례에서는 순응성이 주도성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세 사례에서는 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순응성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화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Table 1).

이와 같이 분류된 세 가지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

Table 1. Narrative Analysis of Life Stories

Narrative analysis	Actors' perspective				Motivation and purpose of action						Actions toward goal achievement					
	Narrator focused (NF)		Other focused (OF)		Self-improvement (SI)			Communion-based (CB)			Self-determination (SD)			Adaptability (A)		
	Behavior/state	Emotion/will	Family	Others	Self-control	Responsibility	Achievement	Caring	Honor (Face)	Intimacy	Confronting situations	Seeking solution	Overcoming situations	Avoidance	Compliance	Acceptance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Strong)=An exemplar of the theme; ++ (Medium)=Coexistence of an exemplar and a counterexample of the theme; + (Weak)=not a specified example of the theme.

Table 2. Narrative Types of Life Stories

Participant	Actors' perspective	Motivation and purpose of action	Actions toward goal achievement	Narrative types
1	NF (Strong)>OF (Weak)	SI (Strong)>CB(Strong)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2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Strong)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7	NF (Strong)>OF (Weak)	SI (Strong)>CB(Weak)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8	NF (Strong)>OF (Weak)	SI (Strong)>CB(Strong)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11	NF (Strong)>OF (Weak)	SI (Strong)>CB(Strong)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14	NF (Strong)>OF (Weak)	SI (Strong)>CB(Weak)	SD (Strong)	Conquest narrative
6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Strong)	SD (Strong)>A (Weak)	Patience narrative
10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Strong)	SD (Strong)>A (Weak)	Patience narrative
15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Strong)	SD (Strong)>A (Weak)	Patience narrative
3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Strong)	SD (Weak)<A (Strong)	Compliance narrative
4	NF (Strong)>OF (Weak)	SI (Strong)>CB(Strong)	SD (Weak)<A (Strong)	Compliance narrative
5	NF (Strong)>OF (Weak)	SI (Weak)<CB(Strong)	SD (Weak)<A (Weak)	Compliance narrative
9	NF (Strong)>OF (Strong)	SI (Strong)>CB(Weak)	SD (Weak)=A (Weak)	Compliance narrative
12	NF (Weak)<OF (Strong)	SI (Weak)<CB(Strong)	SD (Weak)<A (Weak)	Compliance narrative
13	NF (Strong)>OF (Weak)	SI (Weak)<CB(Strong)	SD (Weak)<A (Strong)	Compliance narrative

NF=Narrator-focused; OF=Others-focused; SI=Self-improvement; CB=Communion-based; SD=Self-determination; A=Adaptability.

로 서사 유형이 도출되었다(Table 2). 이 중 행위자 항목과 행위 동기 및 목적 항목에서는 서사를 유형화시킬 수 있는 변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분석항목인 행위주도성 항목은 서사별 명확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하여 강한 주도성 위주의 서사는 극복서사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이 서사유형에서는 행위자항목 중 화자중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위 동기 및 목적 부분에 있어서도 자아발전을 위한 수행성의 동기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음, 강한 주도성과 함께 약한 순응성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이를 인내서사로 유형화하였다. 이 서사유형의 경우 화자중심의 자아성장을 위한 수행성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극복서사유형과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행위 주도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한 상황 주도적 측면과 약한 순응성의 공존은 변별성을 띤다. 마지막, 순응성이 주도성보다 빈번히 나타나는 서사는 순종서사로 유형화하였다. 이 서사유형 또한 행위자, 행위동기 및 목적 등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행위주도성 항목에 있어서는 주도성이 모두 약하게 나타

나는 행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각 유형별 대표사례(3가지 사례)를 통해 행위자, 행위동기 및 목적, 그리고 행위주도성 분석과정 및 결과를 세밀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야기 구조항목은 행위주도성이므로 아래에 제시된 극복서사유형의 사례를 제외한다. 나머지 두 개의 서사유형 사례에서는 행위주도성 항목 부분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극복서사 유형: 참여자 2의 사례

극복서사 유형 중 참여자 2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 구조적 측면인 행위자, 행위동기 및 목적 그리고 행위 주도성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 2는 65세로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루고 있다. 우선 행위자 항목에서는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참여자 2의 사례는 화자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이며 이 인물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사례이다.

저는요 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좀 떠들썩해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그 (성적표에) 수를 안 맞으면 약이 올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동무들하고 갯가에 가재잡거나 고기잡으러가도 제가 대장노릇 했어요.... (중략) 취직을 해서도 저는요 일하는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도 밸런트 00이 나를 보면 0형! 0형은 이 길로(연예계) 들어섰으면 나보다 더 성공했을 거야 그런다구요...(중략) 지금도 나는 이 복지관에 맨날 출근하다시피 하는데요, 나 없으면 안된대요. 지금은 사물반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내가 나서서 이것저것 일이 돌아가게 하니까는 그야말로 절반장인 셈이에요.

다음은 이야기 구조 속 화자가 행한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봄으로써 화자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항목에서는 자아향상을 위한 수행성동기와 주변인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결속감의 동기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자 2의 서사는 수행성과 결속감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 분류된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에 임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체면과 친목을 추구하는 측면 또한 행위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변으로 서울서 살다가 충청도 시골로 이사를 갔으니 거기 토

박이들보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아버지는 한문만 갈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어디에 가서 외상값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 집이 우리반에 집인거예요. 그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거, 그게 그렇게 싫더라구요(체면)...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커서도 부모님이 제 주머니에는 돈이 안 마른다고 하셨어요.... (중략) 제가 뭐든지 하면은 잘하고 윗 어른들이 다 이뻐해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참 재미있고 즐겁고 열심히 하거든요(책임감). 그래서 칭찬받고 보너스 받고 나도 신나고 그리고 그 돈을 알뜰히 근검절약 하면서 살았어요(자기통제/성취감). 뭐 금전적으로 구애받는 삶은 어린 시절 이후 살아보질 않았어요(성취감)....(중략) 우리 남편이(재혼 후 사별한 남편)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 말고 여기 사람들 모르는 곳에 사는 사람 있으며 말동무 삼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양반 명성도 있었고 해서 여기 사람은 싫고(체면)....(중략) 일주일에 5일은 여기(복지관)나와서 여기 동무들이랑 아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내요(친목). 그래서 저는 그 양반 가시고 난 후에 온 우울증을 여기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면서 고친 거 같아요.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 2의 이야기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화자 자신과 주변인들과의 친목이 화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화자의 일면은 “일을 재미있고 즐겁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화자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성향으로 인해 화자는 늘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스스로 다져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적극적 화자의 일면에서 이와 상응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유지이다. 물론 화자는 타인과의 적극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그리하여 주변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그로인해 생애 사건인 사별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관계성 도모를 위한 화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내면세계는 체면에 대한 민감성이다. 예를 들어 외상값을 받으러 급우의 집으로 간 상황에 대한 불편감의 경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노년의 나이에 남자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측면의 언급에 있어서도 주변인과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화자가 지닌 체면에 대한 민감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예를 통해 화자가 지닌 행위에 따른 내면세계

에서는 수행성 동기와 결속감 동기 두 가지 측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이야기 구조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행위주도성 부분으로 화자가 주어진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황주도성과 상황순응성이며 참여자 2의 서사는 상황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이다. 즉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문제를 극복해가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땐 전쟁 후라 얼마나 다들 먹고살기 어려워요. 그래도 오빠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아는 분하고 얘기가 돼서 저를 그 노르웨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병원에 취직시켜주셨어요....(중략) 거기에 취직이 돼서 저는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직장을 다녔어요. 그 원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노르웨이 유학도 보내주시려고 얘기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원조가 줄고 해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중략)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을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중략) 그리고 갈라섰지요. 수중에 돈은 없었어요. 애들 아버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분제원을 하나 반 도와주고 반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했는데 점차 알뜰히 하니깐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다 크고 그럴 쯤에.... 친구의 소개로 우리 선생님(재혼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아주 귀히 여겨주셨어요. 저는 그 당사가 가장 행복한 생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중략)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못살 것 같아 아는 신경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잘 왔다고 조금만 더 늦게 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집을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위의 서사에서 참여자의 행위주도성을 단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사건을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 취직된 시점부터 살펴보면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적응-기회획득(유학) 등의 선상에 놓여있음이 나타났다. 두 번째 사건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이혼으로 가정의 위기직면과 이혼감행-새로운 사업시작-경제적 성공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재혼과 더불어 경험한 제2의 인생위기 사건인 남편과의 사별, 칩거-전문가의 도움-사회활동시작(복지관) 등으로 과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급된 세 가지의 사건, 즉 새로운 직장생활, 이혼, 사별 등은 삶의 과정 중에 경험될 수 있는 큰 사건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적극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며 조화를 이루어나가게 됨을 “즐겁게 일했다”, “알뜰히 해서 규모를 키웠다”,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갔다”,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처한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를 이뻐해주셔서... 유학까지 보내주실...”, “굉장히 성공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따라서 화자는 문제직면, 문제해결, 그리고 문제 극복이라는 3가지 주도성 작동기제에 부합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2) 인내서사 유형: 참여자 6의 사례

인내서사 유형에 대한 사례로 참여자 6의 이야기를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자 6은 65세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녀의 생애이야기 분석에 대한 결과에서는 행위주도성에 대한 분석 예만 제시하고자한다. 이는 서사 유형분석에 있어서 행위주도성 항목에서만 각 서사 유형별 변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6의 사례는 강한 상황주도성과 약한 상황순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서사를 인내서사로 명명했다. 참여자 6은 유복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결혼과 함께 시작된 불행으로 말미암아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화자의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점차 안정적인 삶으로 회복되고 있는 서사이다. 이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행위주도성 측면과 약한 상황순응성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중략) 선을 봤는데 신랑이 제 맘에 안드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천주교신자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그걸 알고 난 후 더 싫은 거예요. 아무리 시부모님 하인들이 떠맡더라도 신랑이 싫으니까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문제 직면). 그래서 기회만 되면 수도 없이 도망나오고 다시 붙들려가기를 얼마를 했는지 몰라요(해결책 모색)....(중략)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는데(문제 해결) 이혼할 즈음에 애가 생긴 거예요(새로운 문제직면). 시집에서는 3년을 기다려 줄테니 그 안에 마음이 변하면 오라고. 딱 3년이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장가가라 하고 나는 이제 애를 공부시켜야 하니깐 돈을 벌러 서울로 간 거죠(해결책 모색). 거기서 지금 이 양반을 만났는데(새로운 문제 직면) 세상에 고추장지 맵다고 그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까 하더니만 그렇게 죽도록 시집살이를 했어요(숙명)....(중략) 두 번 결혼한 여자라고 남편구박, 시어머니 구박 말도 못해요. 결혼해서 한 번도 밥상에 밥

그릇을 놓고 못 먹게 했어요. 호적에도 아내가 아닌 동거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중략) 그래도 내가 거기서 버틴 것은 내가 데리고 간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그 집을 위해서 일하면 한 번은 내 자식 불쌍히라도 여겨주겠지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한 번 실패 했으면 댕지 두 번까지는 내 자신한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숙명/좌절감). 그리고 착한 첫 번째 양반 고통을 준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숙명). 그 일념으로 참았어요....(중략) 제가 수퍼를 했어요. 세상사람 돈이 다 말라도 내주머니 돈은 안 마른다고 했어요. 그 돈 모으는 재미에 그 고통을 이기면서 산거지요(해결책 모색). 나를 지켜주는 건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중략) 이 나이가 되니까 지금 여기(복지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싶구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살아요(문제극복).

참여자 6의 서사는 2번의 결혼과 함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 결혼 상황부터 살펴보면, 화자는 유복한 환경과 함께 결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지닌 사람과 하게 된다. 그러나 화자는 원하는 타입의 남성이 아닌 남편을 만나 힘든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극복을 위해 결혼파기를 시행해보인다. 이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 보일 수 있는 특히 결혼과 관련하여 결혼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흔한 사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결혼 파기를 결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화자의 성장배경과 자신의 주장이 주위로부터 관철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화자 자신의 의지관철 행위는 두 번째 결혼과 함께 완전히 대비되는 행태를 띤다.

화자의 생애 중 의지관철의 시점에서 숙명적 인고의 삶으로 급반전이 생기는 동기는 여성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화자는 재혼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시집생활을 하게 되며, 그 상황에 순응해간다. 이렇듯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작동기제는 첫째, 사회가 부여한 재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 둘째, 화자 자신의 희생으로 화자의 자녀가 성은 다르지만 새로이 형성된 가정에서 자녀로서 대우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에, 셋째, 자신이 버린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을 언급해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을 가해자로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죄값을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두 번째 결혼에서 화자가 택한 삶의 방식은 숙명에 대한 순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순종

하고 인내하는 삶이었지만 화자가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돈을 통해서 억압받은 삶에 대한 보상을 얻려고 한 화자의 의도와 노력은 노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 의지가 관철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복지관이라는 또 다른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내적 만족과 즐거움을 찾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삶을 주도성적 측면에서 최종 종합해보면 상황 주도적 특성이 강한 삶의 전반기와 순응적이며 억압적 상황이 주를 이루는 생의 중반기를 지나 화자가 원하는 생의 기쁨을 다시 찾아가는 상황 주도성의 회복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화자 6의 삶은 상황 주도성-상황순응성-상황주도성의 순환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 주도성이 생의 초반과 후반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강한 상황 주도성과 약한 상황순응성을 지닌 서사로 평가된다.

3) 순종서사 유형: 참여자 3의 사례

순종서사 유형 또한 행위주도성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유형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자 3은 65세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서사는 약한 상황 주도성과 강한 상황순응성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 여성에 대한 관습적 고정관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참여자 3의 생애이야기 속에서는 그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남편에 만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만족해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속에 배어 있는 여성의 강한 순종성을 간과할 수 없다.

좋은 신랑 만나서 배 굶지 않고 사는 게 꿈이라면 꿈이었지요. 다른 거는 없었어요. 우리 남편 잘 만나서 이때까지 그냥 별탈 없이 고생 안하고 살았어요(현실적 만족/안주). 남편이 크게 속 썩게 하는 일(외도, 도박)도 없고.....(중략) 우리 남편이 원체 꼼꼼해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제 맘에 꼭 들게 해요.... 저와는 반대거든요...(중략) 스트레스는 좀 받지요(문제직면) 어떨 때는.... 근데 난 여자는 참아야한다고 생각해요(회피/순종).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난 잘 살아왔다고 믿어요(현실만족/안주).....(중략) 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제가 다 알아서 풀어요(문제 극복). 저는 뭐 장식하며 사는 걸 좋아해요(문제해결). 그릇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그런 걸 한 번씩 싹 바꾸면 기분이 좋아요(문제 극복).....(중략) 우리 애들도 참 착해요. 부모 말이라면 아주 철저히 순종해요....(중략) 근데 우리 둘째 놈(딸)이 좀 지신랑하고 삐걱대나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집을 가면 예전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냐 귀머거리 삼 년에 병어리 삼 년 뭐 그런 게 있잖나.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건 줄 아냐. 참을

수 있는 정신 그게 있어야 한다(순중). 전 여자가 참으며 살아야지 그 집안이 잘 돌아간다고 믿어요(순중). 그래서 니가 참아라, 니가 참아라, 엄마를 봐라 그렇게해서 잘 살지 않았냐 그러지요(순중).

참여자 3의 서사는 굴곡 없는 삶을 살았다는 화자의 자평에서 찾을 수 있듯이 주어진 환경에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삶으로 평가된다. 화자가 느끼는 만족은 화자가 꿈꾸던 결혼생활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라는 목표와 일치됨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진다. 이러한 삶을 영위해오는데 있어서 화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주어진 삶에 더 잘 적응해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집안을 장식하고 철저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행위는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는 일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지닌 내면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미덕으로 자리 잡은 인내하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이 진하게 배어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자는 행복한 여자의 삶이란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며 그 근원에는 여성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로서 딸에 대한 훈계에서도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온 화자 자신이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는 주도성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전체적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 행위의 근본은 순종적 삶 즉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는 삶에 뿌리를 두고 있음으로 상황순응성이 강한 사례로 평가된다.

2. 요실금 서사 분석 결과

생애이야기 분석에 이어 요실금 서사분석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요실금 원인에 접근하는 방식, 요실금 관리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 그리고 요실금에 대한 질병관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인식, 행위, 그리고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극복서사 유형

화자중심의 이야기 관점으로 자아향상의 동기가 강하며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며 살아온 극복서사유형에서 나타난 요실금 질병서사를 요실금에 대한 화자의 인식, 관리행위 그리고 질병관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실금 원인에 접근하고 있는 화자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은 자기확신에 찬 이야기 구성이다. 화자는 요실금에 대해 자신이 단정하고 있는 분명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여자 2:뛰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왜 복날이라고 우리 사물반 그 가까운 사람들하고 천력(소풍)을 갔어요. 가서 한참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확 그게(소변) 나와 버린거야... 야, 쏘냐 그래서, 쏘어 그랬더니 다들 우스워 죽겠대...(중략) 뭐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내 또래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요실금이란게 늙으면 방광이랑 그 근육자체가 다 헐거워져서 그래서 나타난다고 봐요...

참여자 2의 사례에서 화자가 제시한 요실금 원인은 노화이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 신체 기능변화에 대한 지적이 특징이다. 또한 화자의 주장은 같은 연령대의 모임에서 화자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인들도 화자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이 강한 색체를 띤 질병서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2) 행위: “냄새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해요”, “좋아졌어요”

극복서사 유형의 여성노인들이 구사하고 있는 요실금 관리행위에 따른 서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당함이다. 비록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화자는 스스로의 관리노력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확신감으로 인해 화자는 자기 주장에 대한 당당함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라 평가된다.

참여자 2: ...(중략) 냄새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해요. 찻집하니깐 얼른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요. 거기를(회음부) 연습하면 좋다고 하니까는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변보다가 중간에 딱 잘라봐. 그러다가 다시보고 하면 거기(회음부) 힘이 생긴다고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예 화장실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놔어. 언제 언제 운동하라는 걸 딱 붙여놔다니깐요(호호)...

사례 2의 서사를 보면 화자가 행하는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타인을 의식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행위동기임을 알 수 있다. “찻집하니깐 얼른 샤워하고 ...”의

표현은 화자의 행위가 화자자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다. 또한 화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행할 행위계획들은 증상호전의 경험에서 나온 당당함과 자기 확신에 대한 실천적 행위들임을 알 수 있다.

(3) 평가: “내가 다 알아서 할 정도니깐”

평가부분에서는 요실금에 대해 화자가 지닌 질병관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자기 주장적 특징이 강한 극복서사 유형에 속하는 노인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질병유무의 판단기준은 타인의 도움 없이 얼마나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가이다. 즉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정도니까” 또는 “남의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와 같은 진술은 화자들이 생각하는 질병관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극복서사 유형에 속하는 화자들은 질병이란 발현된 증상에 대해 대처할 힘이 없고 몸의 주체 자체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지녀야지만 병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참여자 2: (중략) 주위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조금 씩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이는 친구들끼리는 “쌌냐” “짖어” 그리고 웃는다고요. 뭐 스스로없는 친구들이니까 창피하다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니까 웃을 수 있는 거구요. 어, 요실금이야, 창피해 이런 생각까지는 안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정도니깐요 뭐(독립적 기능)....

참여자 7: ...(중략) 아~이 나는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는 친구들이 자연적으로 다 알아요. ...(중략) 어디를 못 써서 드러누운 것도 아니고 얼른 얼른 내가 갈아입고 씻고 하니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독립적 기능).

2) 인내서사 유형

인내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사의 특징은 자아향상적 행위동기 및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주변상황에 순응하는 일면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유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실금 서사의 특성을 인식, 관리행위, 그리고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인내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실금 원인에 접근하는 이야

기 방식은 자기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유연성이다. 즉 극복서사 유형은 명확한 자기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이 주가 된다면, 인내서사 유형에서는 화자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가정과 추측이다. 이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구’에서도 암시하듯 화자는 자기주장과 함께 주변의 부수적 상황변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참여자 6: 나는요 지리긴 하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신경 쓰며 살지를 않아요.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게 하두 기구해서 좀 지린다고 어떡하나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 여기(복지관) 나오면서부터 생각하게 됐지 뭐 특별히 그러지는(원인 파악)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몸 안 돌보고 그 죽도록 살아오느라고 고생해서 그런 게 생겼지 않나 싶기도 하구. 그때는 나 죽었다 생각하자 그리고 산 거니까는.... 요즘은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참여자 6의 서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실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지난 삶의 결과로 요실금이 발생하였고 보는 견해이다. 특정한 원인에 대한 지적 없이 화자의 전체 생을 통합해서 요실금 원인으로 추정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생애적 원인 추정은 화자의 주장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유연성이 많이 가미된 표현방식이다.

(2) 행위: “남이 그렇게 생각하면(냄새난다고 하면) 어떡하나”, “열심히 하려고요”

인내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실금 관리행위를 하게 되는 작동기제를 파악해보면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의식이 깊게 배어있다. 화자 스스로 실금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도 물론 있겠지만 화자가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대목은 냄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면적 불안이 화자로 하여금 관리행위를 하도록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극복서사에서 나타나는 화자자신의 필요에 의한 행위유발동기와 상반되는 면이다. 그러나 증상호전이라는 행위결과에서는 극복서사와 유사하다.

참여자 15: ..(중략) 근까 그 왜 냄새날까봐 남 곁에 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속옷을 만날 갈아입어야 하고 그래서 누구 옆에 가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어디를 갈려고 하면 화장실을 미리 갔다가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실금증상)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요. 운동을 하고 부팀은요....(중략) 요즘은 거즈까지는 안 대고요....

참여자 6: ...나야 뭐 원채 힘들게 살아왔으니 조금 지린 거야 뭐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옷이나 갈아입고 뭐 그러면서 살았지요...(중략) 우리 모임 갖는 사람들(장고반) 서로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는 운동을 해라 뭐를 해라 그런대구요. 예전에는 그런 게 다 호사였어요. 생각지도 않았지. 근데 이제 같이 운동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요.

참여자 15의 경우 타인의식이 강하면서도 증상호전을 경험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내서사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6의 사례는 요실금 냄새로 인한 타인의식보다는 무신경에 가깝다. 이는 살아온 인생여정에 비해 요실금은 그리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아님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6은 인내서사 유형 중 예외적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 결과에 있어서는 증상호전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 점은 공통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평가: “웬만큼 아픈 것은 아프단 소리를 안하지”

인내서사 유형의 요실금 질병서사 평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병관은 화자가 어떠한 생을 살아왔는지 그 생애 전체가 질병을 평가하는 비교기준이 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화자들은 질병을 지냈어도 질병역할(진단 및 처방을 받기 위해 취하는 행위)을 수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해 요실금은 위급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므로 질병이라는 인식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즉 질병이란 질병적 특성보다는 개인이 경험한 삶의 통합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가 부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자 6: 나는요 지리긴 하는데요. 특별히 거기(요실금)에 신경 쓰며 살지를 않아요.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게 하두 기구해서 좀 지린다고 어떡하나 그렇게는 안 해요. 웬만큼 아픈것은 아픈것도 아니지...(중략) 요즘 여기(복지관) 나오면서부터 생각하게 됐지 뭐 특별히 그러지는(원인파악) 않았어요.

3) 순증서사 유형

순증서사는 이야기 기술에 대한 관점이 화자 자신과 타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행위동기에 있어서도 자아향상과 결속감 모두에서 특정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화자가 처한 주변상황에 순증하는 특성이 고루 표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생애서사 유형과 관련된 요실금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싶지요 뭐”

순증서사 유형의 인식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방식은 당연성에 대한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증상발현에 대한 원인 추적보다 발현된 상태 그대로에 대한 수용이 특징이다. 이는 순증성이 강한 순증서사 유형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요실금이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늙은 몸에 대한 포기와의 일맥상통한다.

참여자 3: 이런 거는 늙는 과정에서, 늙는 과정에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지요 뭐. 다 나이 먹으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 나이 먹고 안 아파요? 다 아프지, 안 아프면 그게 정상이지.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한 번 물어보면 다 그 정도는 있대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난 이걸 요실금이라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뭐 어,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네, 이정도고요, 뭐 이러면서 늙어가는 과정이니까 별 생각 않고 그러려니 하는 거지요...

(2) 행위: “그냥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지요”

순증서사 유형의 요실금 관리 행위에서 특징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은 행위결과적 측면이 어떠한가이다. 극복서사나 인내서사와 다르게 관리행위에 대한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화자의 몸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 5: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지. 지릴 때는 갈아입고 그 정도예요. 우리 그 왜 콧물 나오면 닦으면 그만이고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것도 나오면 갈아입고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여전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나는 좀 그렇다(지렸다) 그러면 가서 씻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안해요. 내가 이게 병이다 그랬다면 벌써 병원에 갔지. 늙으면 다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유난 피울 일도 아니고....

(3) 평가: 불특정한 패턴

요실금을 통해 화자의 질병관을 알아볼 수 있는 평가부분에서 순증서사유형은 특별한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무특징이 특징이다. 참여자 3의 서사만을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참여자 3: 난 내 주위에서 보니까 요실금 있는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한대요... 머느리가 빨래를 해

주는데도 그냥 벗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게 병이지. 냄새가 무지 난대요. 내가 지르는 거는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줌이고 똥해 가지고 싸는 게 아닌 그냥 보통오줌이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 요실금이란 생각을 당연히 안하게 되지...

참여자 3의 경우 실금 증상에 대한 기술은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자가 내린 질병의 기준은 증상발현의 심각성 정도이다. 증상 자체가 지닌 경중에 따른 질병평가기준은 극복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립적 자가관리 수행정도의 기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식이 행위결과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순종서사 유형의 사례들에서는 자가노력에 의한 증상의 호전이나 필요성이 각인되고 있지 않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한국 여성노인들의 생애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핵심 주제는 가족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은 화자들의 삶속에서 행위 유발의 보편적 작동기제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Jang & Burbank, 2000; Kang & Han, 2002; Park, 2000). 그러나 기존의 생애사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가족 속에 묻혀진 “나”라는 자아의 강조이다. 즉 가족을 위한 희생 속에서도 화자들은 자신의 자아향상을 위한 강인함과 발전적 노력을 확연히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강인한 자아의 모습을 본 연구에서는 자아향상을 위한 수행성 동기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동적인 여성의 과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온 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근본 맥락이다.

그러나 그 강인한 삶 속에서도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약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가지 서사 유형인 극복서사, 인내서사, 그리고 순종서사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얻어진 결과로 기존의 생애사연구(Park, 2002)에서 다루어진 삶의 결과론적 측면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삶의 과정적 분석을 통한 결과는 과거의 행위패턴을 통해 현재 행위 상태를 이해하고, 앞으로 행할 행위를 예견하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강점이 있다(Recoeur, 1984). 따라서 각 생애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패턴과 요실금 관리 행위에서 나타나는 패턴과의 관련성은 높은 이환율과 낮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는 노인 요실금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게 해준다.

각 생애서사 유형에서 요실금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요실금에 대해 질병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각 서사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극복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실금에 대한 질병으로서의 인식 저하는 자립적 건강관리수행능력과 관련된 자기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질병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반해 극복서사 유형속 화자들의 요실금은 자립적 증상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질병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Kang (2004)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관적 건강신념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는 결과이다. 즉 요실금 관리방법의 자립적 터득으로 인한 자기확신과 함께 호전된 증상 경험은 요실금 관리에 대한 주관적 건강신념과 그에 대한 긍정적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복서사 유형에서 한 가지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요실금에 대한 외부개방성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확신적 요실금 관리가 외부적 도움을 수용하는데 다소 수동적인 면을 띠고 있는데 반해 Bradyway (2005)의 요실금 탐색서사 유형에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고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변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인내서사 유형에서도 요실금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내서사 유형에서 요실금 원인은 고단했던 지난 삶의 결과라는 추측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와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를 경험한 화자들에게 요실금은 노동 즉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는 아니므로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내서사 유형의 특성인 강한 고난극복의 주도성과 상황순응성은 요실금 관리적 측면에서 그 행위패턴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요실금관리라는 행위목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주도성과 일치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관리노력의 동기가 극복서사와 같이 자신의 내적필요가 아닌 냄새로 인한 타인 의식적 동기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순응성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서사나 인내서사 모두 증상호전이라는 공통의 행위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분명한 행위동기가 있을 경우 긍정적 행위결과가 나타난다는 Han (1984)의 지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긍정적 행위결과와 견주어볼 수 있는 Bradyway (2005)의 연구에서는 요실금 냄새는 긍정적 행위결과를 방해하는 자아위축요소가 되어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행위동기와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순종서사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종적 여성의 삶속에서도 요실금은 질병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 속에서 요실금은 오직 불가항력의 노화 때문으로 상정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착된 사고는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행위개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ng & Hwang, 2004). 이러한 특성을 지닌 순중서사는 Bradyway (2005)에 의해 구분된 요실금 유형 중 희생서사와 비교될 수 있다. 즉 증상호전에 대한 기대나 노력이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서로 부합되나 극심한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희생서사와는 다소 변별성을 띤다. 이는 한국 요실금 여성노인의 경우 요실금이 이미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로 수용 및 습관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아닌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상황순응은 순중서사의 특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행위는 그 질병 대상자가 생애과정을 통해 행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Kleinman, 1980).

결론

본 연구는 요실금이 있는 여성노인들의 생애이야기 속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을 밝혀 극복서사, 인내서사 그리고 순중서사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서사유형별 요실금 질병서사가 지닌 특성을 인식, 행위,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서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언어적 특성을 파악해내었다. 이로써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행위패턴과 질병행위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 증상을 통해 여성노인들의 질병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세밀히 접근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생애이야기 서사와 질병서사에서 나타난 행위 패턴을 파악해봄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행할 행위를 예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실금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료접근에 있어서는 유형별 차별화된 중재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생애유형을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요실금 관리능력을 사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유형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효과 검증이 후속 절차로 이루어져 노인요실금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REFERENCES

- Bradyway, C. (2005). Women's narratives of long-term urinary incontinence. *Urology Nursing*, 25, 337-344.
- Burke, K. (1945). Introduction: The five key terms of dramatism. In B. Kenneth (Ed.), *A grammar of movies* (pp. 1-2). New York, NY: Prentice-Hall.
- Chang, S. O., & Patricia, M. B. (2000).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259-271.
- Cho, M. O., Kim, Y. K., Kim, Y. H., Yang, J. H., Yoo, Y. J., & Tae, Y. S. (2003). Folk illness of chronic disease among the elderly women. *Women's Health*, 3, 188-211.
- Han, D. E. (1984). The trend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its perspectiv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2, 54-93.
- Hunt, S. (1993). *Promoting continence in the nursing home*. Victoria (VIC): Continence Foundation of Australia.
- Kang, E. J., & Han, G. H. (2002). Korean women's life trajectories and later liv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7, 99-126.
- Kang, Y. J. (2004). Resilience in the Korean elderly women: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14, 50-83.
- Kim, J. I. (2002). Prevalence of urinary incontinence and other urologic symptoms in a community residing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28-39.
- Kim, J. S., & Lee, E. H. (2003). Treatment seek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among community dwelling older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 Society*, 23, 33-47.
- Kleinman, A. (1980). *Patient and healers in the text of culture*. C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Lee, J. I. (2004). *Narrative style and marital life: The life stories of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Oh, H. S., & Kim, M. K. (2005).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urinary incontinence and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469-477.
- Park, K. N. (2002). Live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rough their life histories. *Studies of Feminism*, 149-194.
- Park, O. H., Kwon, I. S., & Kang, Y. S. (2001). A study on urinary incontinence of elderly women in a communit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 536-546.
- Recoeur, P. (1984).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e, B., & May, C. (1999). Incontinence and sexuality: Findings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0, 573-579.
- Shaw, C., Tansey, R., Jackson, C., Hyde, C., & Allan, R. (2001). Barriers to help seeking in people with urinary symptoms. *Family Practice*, 18, 48-5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Yong, H. C., & Hwang, K. Y. (2004). Process of consciousness and counseling psychological paradigm - Transpersonal psychological review.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7, 27-42.